풀리가 원래 목양견이었대요

"아유 얘네 통통해서 달릴 수나 있겠어?" 하고 딱 봤는데

아이보리 색깔의 풀리가 양들을 모는데

양하고 구별이 안 돼

[견종백과 / 헝가리안 풀리편]

**헝가리안 풀리 소개**

안녕하세요 훈련사 강형욱입니다

견종백과 근데 오늘은

견종 백과가 아니라

견종 탐방이 될 것 같아요

아니 왜 그러냐면

[갑부 / 헝가리안 풀리 / 4세] 오늘 나온 강아지가

[갑부 / 헝가리안 풀리 / 4세] 헝가리안 풀리라는 견종입니다

사실 제가요 우리 헝가리안 풀리를

살면서 몇 번 못 봤어요

한 3년 전에 개훌륭에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 봤고요

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은 적 있고

이 친구가 그다음번인 것 같아요

그래서 제가 살짝 공부를 좀 해오기는 했는데요

제가 공부를 한 것과

많이는 못 만나봤지만 그래도

'풀리는 어떤 견종인 것 같습니다' 라고 이렇게

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

**헝가리안 풀리의 분리불안?**

[헝가리안 풀리의 분리불안?] 근데 얘가 지금 앞에 계신 보호자님께

[헝가리안 풀리의 분리불안?] 이렇게 막 가려고 하잖아요?

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풀리들의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면

[(보호자 옆에 착 붙어있는 껌딱지 풀리)] 분리불안이 있다는 얘기와

[(보호자 옆에 착 붙어있는 껌딱지 풀리)] 자기 주인 옆에만 왔다갔다하고 쫓아다니더라고요

저한테 "졸졸졸 따라다녀요" 라고 하는 질문을

공통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오늘 딱 들어와서...

- 공통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오늘 딱 들어와서... - 앙

갑부!

먹이는 먹네요

갑부를 봐도 보호자님한테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요

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

**헝가리안 풀리의 털 관리?**

[헝가리안 풀리 털 관리?] 저 강아지 아마 데리고 다니면

[헝가리안 풀리 털 관리?] 헝가리안 풀리 모르시는 분들은

"미용을 어떻게 한 번도 안 시켜주니?"

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

털이 좀 그렇습니다

그런데 딱 봤을 때 털이 안 빠질 것 같아

어떤 가요? 이 친구 털은

[(굵은 털 뭉치가 뚝 떨어져 있음)] 털이 빠지면 그냥 이거 하나 뚝 떨어져 있어요

[(굵은 털 뭉치가 뚝 떨어져 있음)]

이 친구는 미용을 어떻게 합니까?

그냥 저게 꼬이는데 저희가 손으로 찢어주는 거거든요

그니까 두껍게 꼬이면 그거를 얇게 찢어주는 거예요

전자기기 이렇게 배송받으면

뽁뽁이로 감싸져서 오잖아요

그걸 이렇게 뚝뚝 터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

그런 분들이 이 친구 키우시면서 털 찢으면

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

주변사람들이 이 친구 데리고 다니면 뭐라고 하세요?

되게 신기해해요 처음에 보면은

외관적으로 강아지인지...

염소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...

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도 많이 걸고

궁금해 하시고 멋있다고도 하세요

**헝가리안 풀리의 생김새?**

[헝가리안 풀리 생김새?] 사실 이 친구가 제가 봤던 풀리 중에는

[헝가리안 풀리 생김새?] 제일 큰 것 같긴 해요

제가 예전에 봤던 풀리들은 5cm 정도 작았고요 색깔은

[(그레이) / (화이트) / (블랙)] 제가 알기로는 검정색하고

[(그레이) / (화이트) / (블랙)] 하얀색은 아닌 것 같아

[(그레이) / (화이트) / (블랙)] 베이지?

하얀색인데 때 탄 거 아니에요?

저희 이모가 베이지 색깔을 키우고 있는데

털 안에 풀이나 먼지들이 껴가지고 지저분해져가지고

색깔이 그렇게 되더라고요

[(털 사이사이에 다 끼는 먼지 & 모래)] 해변 가면 모래가 다 끼지 않을까요?

[(털 사이사이에 다 끼는 먼지 & 모래)]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다는 잘 안 데리고 가요

[(그래서 먼지를 막아주는 점프수트 필수)] 그냥 어디 갈 때 올인원 하나 입혀가지고

[(그래서 먼지를 막아주는 점프수트 필수)] - 아 옷 하나 입히고 - 네네네

진짜 풀리를 키우려면

청결에 편견이 없으셔야 할 것 같고

저는 지금 딱 봤을 때

목욕 어떻게 시킬까 너무 궁금하거든요

목욕을 얼마에 한 번씩 시키시나요?

일주일에 한 번씩은...

- 저희가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 - 그래요?

똑같이 씻기고

여기는 진짜 걸레 짜듯이 이렇게 쥐어짜야 돼요

[헝가리안 풀리는 목양견?] 풀리가 원래 목양견이었대요

**헝가리안 풀리는 목양견?**

[헝가리안 풀리는 목양견?] "아유 얘네 통통해서 달릴 수나 있겠어?" 하고 딱 봤는데

아이보리 색깔의 풀리가 양들을 모는데

양하고 구별이 안 돼

[(풀리를 찾아라)] 그래서 잠입해 있는 거야

[(풀리를 찾아라)] 모는 게 아니라 양인 척 하는 거지

'난 저기 가고 싶었어'하고 가니까

양들이 따라온 거 아닐까?

뭐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...

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완전

[헝가리안 풀리 장점?] 개인적인 시간이 있으신 분이었으면 좋겠고

**헝가리안 풀리 장점?**

[헝가리안 풀리 장점?] 그렇지 못하면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

이렇게 몇 마리를 보면

보호자하고 도킹 되는 수준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

진짜 특이한 나만의 개를 키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

이 친구 진짜 좋은 것 같고

[헝가리안 풀리 단점?] 단점이라고 한다면...

**헝가리안 풀리 단점?**

그 외에는 다...

근데 이런 개들이요 의외로 조용했거든요

제 경험상 보호자랑 도킹이 잘 된 친구들은

보호자랑 있으면 특별하게 시끄러운 개는 아니었어요

어떤가요? 이 친구

집에 있을 때 좀 소란스러운 편인가요, 아니면 좀 조용한 편인가요?

조용한데 오늘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

아이 그럴 수 있죠오 그럼요

원래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어요

**헝가리안 풀리 키우는 난이도?**

[헝가리안 풀리 키우는 난이도?] 느낌으로 한번 말해 볼게요

[헝가리안 풀리 키우는 난이도?] 운동량만 채워줄 수 있다면

전 난이도 한

[4점 / 10점] 4 봅니다

왜냐면 저렇게 보호자님 옆에 붙어있으면서

보호자의 감정을 살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

그런데 이렇게 보호자님하고 일심동체가 되길 좋아하는 개들이

그렇게 못하게 됐을 시

신경질적인 개들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거든요

또 하나는 풀리를 2~3마리 키우는데

보호자가 혼자 2~3마리를 키운다?

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

저 도킹이 개한테 갈 것 같아요

그래서 개들끼리 똘똘 뭉치게 될 것 같은데

한 마리만 키운다면 4점이고요

다견으로 키운다면

[9점 / 10점] 9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

[헝가리안 풀리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 제가 느낄 때 풀리는

**To.헝가리안 풀리 예비 보호자**

[헝가리안 풀리 예비 보호자에게 하고 싶은 말?] 정말 보호자하고 한 몸이 되고

일심동체가 되고 싶어 하는 개인 것 같아요

보호자랑 접점을 이루고 사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

실제로 제가 만난 친구는 보호자랑 떨어지니

분리불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

짖는 분리불안이 아니라

숨어서 기다리는 분리불안으로 표현이 되던데

그런 걸 보면 저 친구들은 대부분

원맨독의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친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

혹시 풀리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

재택근무자나 아니면 이 친구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

이 친구하고 도킹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

[헝가리안 풀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] 풀리는

**헝가리안 풀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**

[헝가리안 풀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] 우원재다

[헝가리안 풀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] 멋지다

똑같지 않습니까 검정색 비니 쓰신 거랑

그분이 얘랑 같이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

우원재 화이팅(?)

한국어 - jamake